

원희연 (전 부산지역정책연구소 기획실장¹⁾) 1차 구술

1. 구술자: 원희연
2. 면담자: 박보영
3. 촬영자: 권용협
4. 구술일자: 2011년 11월 3일
5. 구술장소: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
6. 구술분량: 03분 34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가진 만남

면담자 : 대통령님 퇴임 후에 젊은 학자들과 소주에 삼겹살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, 이런 소회를 밝히신 적이 있는데요.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젊은 학자들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.

구술자 :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인제 학자 분들하고 대통령님 한번 뵈러 갔습니다, 봉하에. 봉하에 가서. 그때는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아직 본격화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퇴임 이후에 구상을 열심히 하실 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같이 그 저 뒤에 봉화산에 등산을 갔습니다. 부엉이 바위도 갔었고.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산의 유래, 부엉이바위의 유래, 어쨌든 지형 전체를 설명하시면서 봉하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쪽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. 마치고 저희들은 쪽 한 바퀴 돌아서 봉하마을을 한 바퀴 돌았고. 시내 쪽에 나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. 삼겹살에 소주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김정호 비서관도 있었고 이호철씨가 있었나요? 그렇고. 같이 갔던 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주를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소회를 밝히시는 과정에서 두 가지 구상을 밝히셨는데, 그 첫 번째가 봉하마을 가꾸기. 그때 오리농법하면서 그게 상당히 성공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후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친환경, 친환경마을을 만드는 구상에 대해서 ‘민주주의 이쁨공(2.0)’²⁾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상호소통을 통한, 상호소통을 통한 정치담론을 재생산하고 거기서 나왔던 공감대 부분들이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,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시대의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

1) 1994년~1995년 재직.

2) ‘시민주권시대, 성숙한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토론광장’을 표방한 사이트. 퇴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기획했고 퇴임 후인 2008년 9월 18일 오픈했다.

굉장히 기대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‘민주주의 이펙트(2.0)’은 그렇게 썩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.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요?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하여튼 나름대로 퇴임 이후에 그 남은 삶에 대한, 나름대로의 건강한 구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마지막이 됐던 것 같구요. 살아서는 마지막이 됐던 거 같구요.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누가 볼 때도 한 시대를, 한 시대의 새로운 정치적 이정표를 만든 분이 아니었나. 정말 양심적으로 고민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파하고 실제로 실천으로 자기 삶을 불살랐던 분이라 생각하구요. 항상 제 맘속의 사표(師表)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.

■ 구술자 주요이력

1958. 부산 출생

1993.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

1994. 부산지역정책연구소 기획실장

1996.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

2002.12 - 2003.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

2004.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단장

2007.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

2012. - 경성대학교 산학단장(2012년 현재)

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구 활동에 매진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이 1994년 설립한 부산지역정책연구소 기획실장으로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. 연구소 재직기간이었던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도 참여해 정책 및 공약개발을 담당했다.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을 맡았고 2003년 전략산업기획단 단장으로 국책사업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.